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형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권 행보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한국형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자신의 정책을 구상하게 될 싱크탱크 성격의 '국가미래연구원'을 발족시켰다.

박 전 대표는 연구원 발기인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새로운 국가발전의 기로에 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국가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대권용 정책연구원을 발족시킨 것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보다 큰 틀 속에서 보면 박 전 대표의 정책연구원 발족은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은 이명박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정책 경쟁을 통해 대선 과정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2007년 대선은 정책이 실종된 채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으로 시작해서 검찰의 BBK 수사로 끝난 선거였다.

물론 대선 후보의 도덕성 검증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도덕성에만 맞추면 정책 없는 선거가 되기 쉽고 선거가 끝나도 여운이 남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원 발기인의 79%가 대학 교수 등 학자들

‘박근혜식 대권 행보’에 대한 단상

이고, 현역 의원은 단 한 사람만 참여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박 전 대표가 연구조직 출범을 정치와 끝마모 연결시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은 후보 대선 캠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책을 맡아 활동을 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관행은 경선이 끝나고 나서도 유훈증이 심각했다. 친이-친박간의 내전은 계속되었고, 도저히 답을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를 향해 저주하고 저주 없이 칼을 겨눴다.

이런 고질적인 한국적 병폐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캠프를 현역 의원 중심이 아니라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는 것은 박근혜식 정치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연구원은 발기인들이 매달 내는 5만 원씩의 회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에 대권 후보들이 사조직을 만들면서 재정의 모든 것을 떠맡았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여하튼 능동적 참여와 투명한 정치에 향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연구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구원이 "중요롭고 자유로운 선진 대한민국을 만

려야 한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박 전 대표는 풀·푸·세(세금은 풀리고 규제는 풀고 법집행 세우자)를 자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박 전 대표가 최근에 제시한 '한국형 복지'와 이 공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성장을 근간으로 하는 '풀푸세' 공약을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무계 중심을 성장에서 복지로 옮긴 것인지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셋째, 열린 마음을 토대로 '정책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서로 상충되는 반대 의견을 많이 청취하면서 통합의 시각에서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는 창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연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지혜가 필요하다. 당장, 민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이병기 종편심사위원장이 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의 발 빠른 '정책행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행보가 한국 대선에서 최초로 후보의 철학이 살아 숨 쉬고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뤄지는 격조 높은 선거가 도래하는 발판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명지대 언론교양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로 칼럼

문형철



'키'가 개인의 경쟁력이 된 지 오래다. 키가 작은 이들의 1cm라도 크기 위한 노력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키가 안 큰 요인은 크게 선천적 요인(25% 이하)과 후천적 요인(75%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선천적인 것으로는 부모의 체질적인 유전이 많이 좌우된다. 아빠 키가 166cm, 엄마 키가 158cm 이하면 자녀에게 성장장애나 성장지연이 일어날 수 있다.

후천적인 요인으로는 운동부족,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한 영양부족, 주위환경, 정서, 잦은 병치레, 수면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원인이 인체 내 불균

이동의 경우 여성호르몬 분비로 가슴, 작은 성기 등 남자아이의 여성화가 진행되어 아이를 위축시키고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성장에 좋은 운동으로는 철부 매달리기, 농구, 줄넘기, 쪽쪽 놀리는 체조는 필수이고 배드민턴, 탁구, 조깅 등도 좋다. 그리고 수면습관도 중요하며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호르몬 분비가 제일 왕성하기 때문에 10시 이전에 반드시 자게 해야 한다. 수면중에 90%가 크기 때문에 아토피, 비염 등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을 없애주는 것도

성장 치료

형을 초래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키고, 골격과 내장 기관에 발육장애를 일으켜 성장 장애와 면역 능력 저하까지 초래한다.

인체의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성장판의 활동을 중단시키고, 성장판을 닫히게 만들어 키가 자라는 것이 멈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성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 2년 정도 지나면 성장판은 완전히 닫힌다. 평균적으로 남자의 경우 만 16세, 여자의 경우 만 14세 정도가 되면 닫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검사의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성장판은 시기가 지나면 닫혀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 이상 키를 키울 수 없으므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검사 시기를 잘 정해야 한다.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 초등 저학년 때, 남자 아이의 경우 늦어도 초등 고학년 때는 검사를 받아야 적절한 시기에 성장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

비만하면 성호르몬의 분비가 빨리 시작되며 그만큼 성장판도 빨리 닫혀서 키를 키우기 힘들어진다. 또한 비만

매우 중요하다. 사춘기 이전의 성장은 운동을 위주로 하여 뛰어 놀아야 하고, 중학생 후 사춘기 이후에는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나 수면장애를 잘 조절하여야 성장이 잘 된다.

한방 키 성장요법은 한약 처방, 성장판 주위에 침을 놓는 침구요법, 뼈의 올바른 배열을 유도하는 한디리 교정요법, 치료적 맞춤형운동 등으로 이뤄진다. 한방 성장치료는 성장호르몬에 국한되지 않고 아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보강해 키 성장을 원활히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질환(소화기 질환으로 영양 흡수가 안 되는 경우, 또는 비염이나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경우, 편식이나 심해서 영양 부족이 온 경우 등등)이 있을 때 그만큼 성장에 쓰이는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장 한약, 성장 침, 성장 운동 등의 치료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식습관이나 수면습관, 환경 및 스트레스 요인 등을 교정하게 되면 훨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첨단한방병원 원장)

쓸모 없어진 하천 수중 보 콘크리트 철거 생태계 살려야

지방의 크고 작은 하천변을 지나다 보면 물을 가두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것을 일컬어 '수중 보'라고 한다. 가뭄에 대비해 농업용수를 얻기 위한 것이지만 최근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콘크리트로 만든 보가 하천에 설치돼 있을 경우 유속을 감소시키고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모래생산을 막는다. 즉 물이 하천을 따라 흐르면서 그 안에서 흙과 돌이 부딪히고 깨져 모래가 되고 이것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 자연스럽게 천연 강 모래가 만들어져 쌓이는 생태계 순환사이클이 사라지는 것이다. 또 보가 막고 있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퇴적돼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경기도의 공릉천은 보를 철거한 뒤 BOD와 부유물질이 모두 감소했다고 한다.

현재 전국 지방 농촌에 설치된 보의 1만 80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이제는 농지의 감소와 농수로 개선으로 쓸모가 없어진 수중보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하천 생태계를 살려야. ▲남보라·전남 광양시 도이동

기고

변원섭



광주시 동구가 지난 2006년 4억 2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예술의 거리 300m 구간에 설치한 '루미나리에(Luminary-인공조명 구조물)'가 결국 4년 만에 철거된다고 한다.

동구는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지비 과다지출 등을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고 한다.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는 설치를 추진할 때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동구는 주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루미나리에 설치 이후에도 이를 바라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갈등을 벗어나고, 임기 동안 눈앞에 보이는 치적 쌓기는 이젠 중단하길 바란다.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이 너무나 많다. 광주의 경우 구간경계조정, 도시철도 2호선, 도청별관 철거문제 등 다양하다. 이를 추진하고 계획수립 하는데 일반통행식의 결정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단체장은 물론이고 관련전문가, 정치인, 시의원, 구의원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상호 미래지향적이고 상생적

자치단체장 통합 리더십 보여 달라

보는 시민들은 의견은 다양했다. 국적도 예술성도 전통성도 없는 것을 설치한 것은 도심공동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의 거리를 두 번 죽인 것이라는 비판과 그래도 안 해놓은 것 보다는 좋다는 의견들이었다. 다른 지자체도 이 루미나리에 때문에 다양한 흉역을 지었다. 아무튼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수고 또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이 추진하여 완공했던 동구 예술의 거리 루미나리에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철거를 결정한 현 동구청장의 판단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된다.

단체장들이 한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피해는 곧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다.

1999년 광주시 북구가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던 서방지하상가를 사업전망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중에 다시 매우 큰 결정을 했다. 이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명한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같은 사례는 자치단체장의 결정이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도 반대 입장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호선을 살리기 위해 2호선 건립하고, 차후 1, 2호선을 살리기 위해 3호 선 건립하려 한다면 차라리 1호선을 물어버리고 시민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의견과 2호선을 건립할 예산과 1호선의 적지비용으로 기존 교통망에 활용자는 방안 등 다양하다. 물론 SOC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지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사업은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 한다.

지역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부서 간의 갈등 속에서 누가 이를 풀어가야 하겠는가. 학습하고, 상호 대화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 리더들의 역할을 보여줄 사람들이 자치단체장들의 몫이라고 본다. 필요할 때마다 주민의 대표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바란다. 2011년에는 통합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한국농물협회 호남지부장·첨여지치21 운영위원장)

시설

여수엑스포 'SOC 지원' 정부 약속 지켜야

여수산단 진입도로와 목포-광양-전주-광양 고속도로 등 여수엑스포의 성패를 가를 핵심 SOC 건설사업이 엑스포 개최 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서울에서 예산 확보 합의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엑스포 반납 움직임까지 보인 여수시민을 비롯한 지역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29일 박준영 지사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방문, 여수엑스포 SOC 예산 중 부족한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 장관이 엑스포 개최 전인 2012년 1월 말까지 여수산단 진입도로와 고속도로 등 핵심 SOC가 반드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약속이 이행될 경우 SOC 핵심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 29일로 'D-500일'을 맞은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현재 엑스포 준비는 박람회장과 도로 등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이 43%를 보이고 있고,

박람회장 핵심시설인 전시관과 국내 최대의 아쿠아리움 공사 등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순수 박람회장 사업비 2조1000억 원 중 2조 원이 넘는 예산이 확보돼 향후 공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회 참가 열기도 높아 현재까지 참가를 통보해 온 나라는 76개국에 이른다.

문제는 정 장관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핵심 SOC 사업비가 3천억 원이 넘는 데다 4대강 사업 등으로 건설 사업비가 태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다.

엑스포 성공 개최 여부가 SOC 사업에 달려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엑스포 반납도 고려해야 한다. 도로망 조차 제대로 갖춰 놓지 않고 엑스포를 개최한다면 국제적 위상 실추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전남 인구감소를 '전국 최고' 대책은 없나

전남의 인구가 급기야 170만 명대로 떨어졌다. 도무지 바닥을 모를 정도로 추락하고 있는 전남 인구는 지역 활력 상실을 예고하기에 예상일이 아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에 따르면 전남 인구는 171만9000명으로 2000년 199만 6000명, 2005년 182만 명 등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감소율은 지난 5년 새 5.6%를 기록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전남은 전체 가구(67만2000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28.2%에 달해 3가구 가운데 1가구는 혼자 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결국 전남에 먹고 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태부족이다 보니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이는 전국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맞물리면서

전남을 더욱 쪼그라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남은 수 십 년째 인구감소로 지역 성장률이 둔화되고, 다시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갇혀 있다. 더욱이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개선도 당분간은 기대안이다.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온갖 대책을 쏟아내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시적인 지원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전남이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다. 안정된 일자리가 생긴다면 누군군 되돌아오지 않겠는가.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지역민과 전남도가 모든 역량을 '기업 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든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교육환경이나 문화환경 조성 등 정부 여건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안을 병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無 等 鼓

“차도너”에게는 ‘까도남’보다 ‘따도남’이 최고의 ‘꼬핀남’이다. 상대가 ‘꼴 상대’와 ‘팔바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웬 외계어? 아니다. 해석하자면 차가운 도시 여자에게는 까다로운 도시 남자 보다는 따뜻한 스타일이 더 고소하고 싶은 심정인데, 감미로운 목소리에 걸려 혼하게 되면 팔밖에 모를 정도로 다정한 남자면 더 좋다는 뜻이다. 울 한 해 동안 떠오른 신조어

표현해본 요즘 젊은이들의 이상형이다. 신조어는 대부분 줄임말이다. 우리 사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인터넷, 메신저, 트위터 등 새 매체의 도움으로 급속하게 생성, 성장, 소멸을 거듭하고 있다. 온라인 공

간에 좀더 편리하게, 좀더 신속하게 걸러는 젊은 ‘언중(言衆)’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트렌드를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특목 튀는 언어감각과 신세대다운 창의성이 압권이다.

짐승들(짐승+아이돌, 짐승처럼 야성적인 매력을 지닌 아이돌), 청년실신(대학 졸업 후 실업자가 되거나 버린 등

욕급을 갖지 못해 생긴 신용불량자), 스마트폰바이(첨단기능에 적응하지 못해 스마트폰을 두려워하는 심리) 등이 그 예다.

생생 주제는 주로 10대 청소년이다. 각종 드라마, 영화, 게임, 만화, 스포츠 등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신조어를 파생시킨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신조어를 파생시킨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신조어를 파생시킨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콘텐츠는 필연적으로 신조어를 파생시킨다.

에 달라붙는 대로 압축한다. 다소 이치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럴듯하게만 들리면 유행을 탄다. 일종의 말 만들기 놀이다. 그러면서도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까도남이나 꼬핀남에는 성실하고 정직하며 가슴이 넓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남성 이미지와는 겹치는 면을 찾지 힘들다. 물질만능의 성격에 아이돌 뽀짝은 외모가 떠오른다. 설행에는 신조어도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 토끼해에 걸맞게 ‘형식과 실속’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줄임말이 더 많이 생성되기를 바란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news@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